해외에서 잘나가는 광주 작가들

런던 사치갤러리 전시 이이남 작 '디지털 8폭 병풍'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 집으로

최근 이이남, 이매리, 진원장, 최재영 등 지역작가들이 외국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디어작가 이이남씨의 작품이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부인 세리여사에게 판매되는 가 하면 서양화가 이매리씨의 작품과 전시회가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현대 미술 강의의 교재로 사용돼 화제다. 또한 진원장씨를 비롯한 지역작가들이 대거 독일 쾰른아트페어 등에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선두주자는 런던에서 인기몰이중인 이이남씨다. 이씨는 사치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안 아이-문제너레이션'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개막과 함께 출품작 3점을 모두 판매했다.

데미안 허스트를 발굴한 세계적인 컬렉터 찰스 사치가 운영하는 사치갤러리에서 열리는 '코리안…'전은 강형구, 이형구, 전준호, 박정혁, 이이남, 이환권, 이립, 추종완, 데비한 등 31명의 작품 10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20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당초 2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4천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전시기간을 오늘 12월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씨의 '디지털 8폭 병풍'은 수묵으로 표현된 연못을 배경으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게 한 영상 작품으로 1억 2천만원에 셰리 여사에게 판매됐다. 한국적인 멋과 톡톡 튀는 이미지가 결합돼 영국 'VIP급 컬렉터'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이매리씨의 개인전이 열린 뉴욕 텐리갤러리에서 뉴욕시립대학교 학생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이매리 뉴욕 전시회 평론가들 호평
진원장·고근호 등도 유럽무대 진출

이씨는 또 겸재의 '금강전도'를 움직이는 미디어 작품으로 재해석한 '신금강전도' 등의 작품을 통해 유럽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원작 그림 안에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낙엽 지고, 눈이 내리는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이다.

서양화가 이매리씨도 뉴욕 전시를 통해 미국 내 유명 평론가와 미술 잡지 관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씨는 뉴욕 텐리갤러리에서 '여성의 힘과 이매리'(5~26일)전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이곳 전시장에서 뉴욕시립대학교 아시아현대미술 강의을 듣는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광주의 작가 이매리와 이매리의 작품에 관해서'를 주제로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전시회를 둘러본 뒤 이씨와 이 대학 탈리아(Thalia) 교수와 함께 아시아 미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이씨의 전시회에는 세계적인 평론가인 로버트 모건과 유명 미술전문지 '아트 인 아메리카'의 리처드 바인 편집장, 이 잡지의 아시아지역 조나단 굿맨 편집장 등이 둘러본 뒤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벽과 바닥에 규칙적인 배열에 따라 판을 설치한 작품에는 동양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며, 페미니즘을 뛰어넘는 여성과 남성의 화합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클 잭슨과 마릴린 먼로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조각가 고근호씨도 국내 유명 스타 A씨의 주문을 받는 등 몸값을 높이고 있다. 고씨는 싱가폴, 나가사키, 홍콩 옥션에서 러브콜을 받아 작품을 출품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무대 진출에도 나섰다.

또 진원장, 최재영, 박수만, 정운학, 정광희, 김숙빈, 조강헌씨 등은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쾰른아트페어21'(15일~11월1일)에 참가해 유럽 미술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아트페어는 유럽의 60개 갤러리에서 300여 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독일 대표 미술시장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두 스치니 대나무 꽃피고 학이 나네

김기찬 낙죽장 내달 15일까지 서재필공원에서 전시회

낙죽(烙竹)은 불에 달군 인두로 그림과 무늬를 새겨 넣기 때문에 조그만 흔들림에도 좋은 작품을 완성할 수 없다. 낙죽 인두가 표면을 스치듯 지나가면 대나무에 꽃이 피고, 학이 날게 된다.

낙죽장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이자 얼레빗 기능전승자인 김기찬 장인이 오는 11월15일까지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기념공원 계심헌 공예미술관에서 '텅 빈 충만에서 빛의 세계로'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구부러진 인두로 대나무에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리는 전통 낙죽 공예의 멋을 한껏 선사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낙죽만을 고집해 온 장인의 정신이 깃든 실패, 붓, 장도 등 다양한 낙죽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실패와 붓은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가미됐고, 낙죽장도에는 흔들리지 않고 신의를 지킨 옛 선비의 정신이 담겨있다.

또 전시장에서는 김기찬 장인의 작업 모습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 낙죽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관람객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서재필기념사업회 김중채 이사장은 "장인의 깊은 정신세계에서 무르익은 선 하나 하나까지 부족함이 없다"고 평했다.

김기찬 장인은 지난 1978년부터 낙죽 대가인 박용기, 이동연선생을 사사했고, 1988년에는 낙죽 전수교육 조교로 지정됐다. 현재 서재필기념공원내 계심원 공예미술관에서 작품 활동 중이다. 문의 061-852-210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둘 같은 하나'

광주현대무용단 '천개의 공감' 전국무용제 금상

안무상·연기상도 받아 … 30일 광주 무대에

박종임씨

김미선씨

광주현대무용단(예술감독 임지형 조선대 교수)이 제18회 전국무용제에서 금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지난 15일~24일까지 김해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15개 시도 대표들과 경합, 금상(상금 1천만원)과 안무상, 연기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대통령상(상금 2천만원)은 충남 대표인 최소빈 무용단의 발레 '화·접·몽'이 차지했다.

수상작인 '천개의 공감'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 없이 얽혀 돌아가는 '사람의 관계'를 역동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이다. 무대 천정에 매달려 있는 여주인공과 부유하는 듯한 무용수들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작품은 다섯개의 문과 커다란 시계추 등 다양한 세트가 인상적이다.

이번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도 공중 위를 무대로 사용하는 등 공간 활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무상을 수상한 박종임씨는 광주현대무용단 수석단원으로 조선대 무용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N.Y.U 연수를 다녀왔다. 박씨에게는 부상으로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천개의 공감'

연기상을 수상한 김미선씨는 조선대 무용과 출신으로 현재 조선대 무용과 연구 조교로 재직중이다.

수상작인 '천개의 공감'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舞한가능'이라는 타이틀로 광주 무용의 현재를 보여주는 이번 무대에는 광주현대무용단과 광주로얄발레단의 '루아흐'(안무 박선희)가 함께 선보인다.

한편 제19회 전국무용제는 오는 2010년 10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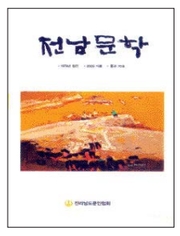
'전남문학' 가을호 발간 … 특집 '전남 기행'

전남문인협회(회장 조수웅)의 계간지 '전남문학' 가을호(통권 70호·사진)가 나왔다.

이번 가을호에는 특집으로 '제3회 전국문인협회 초청 전남 기행' 내용과 화보를 담았으며 지회 탐방으로 장성문인협회를 소개했다. 또 바다의 시인, 낭만의 시인으로 불리는 최정웅 시인을 만났다.

이밖에 고미선, 김창현, 강천환씨 등 회원들의 시, 시조, 수필 등 작품과 제6회 신인상 수상 작품, 수상소감, 심사평이 실렸다.

이번 신인상은 시 부문에 박옥금, 이숙희, 김이호, 노운서씨가, 수필부문에서는 강성률씨가 수상했다. .



한편 전남문협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전남 농수산물판매 전시장 2층에서 제6회 전남문인협회 시상식과 '전남문학' 출신 작가회의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363-995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